

교
가
찬란한 옥과같이 갈리고 갈려
단단한 쇠와같이 닳리고 닳려
영도에 날고뛰는 용마보다도
현해를 구비치는 고래보다도
우리는 지혜롭고 더욱 날래세
새로운 우리나라 기념탑으로
크나큰 이름내는 경남중고교

경남중고동창회보

발행·편집인: 鄭昭永
발행처: 경남중고등학교동창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의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TEL: (051)245-7551~3, FAX: 245-7550
인쇄처: 釜山日報社
在別冊發售—서울 양동포구 여의도동45-20 동북빌딩 504호
T: (02)783-0071~2 F: (02)783-0073

기별야구 10월 10일 용마의 밤 12월 20일

제14~46회 단일팀 출전 ... 핸디 2회 1점
우승 1백만원·준우승 80만원·최다참가상 50만원

금세기 마지막인 제31회 기별야구는 오는 10월10일(일요일) 오전 10시 모교구장에서, '99용마의 밤 축제는 오는 12월20일(월요일) 오후 6시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볼룸서 각각 열린다.

정소영 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위원장)은 8일 회장단회의와 9일 이사회에 상정, 확정할 올해 하반기 주요사업 계획안을 이같이 마련했다.

기별야구는 연합팀(제1~13회)의 오픈경기를 개막식 직후 치르고 단일팀은 지난해 중년·장년·청년부를 모두 통합, 제14~46회까지로 해 토너먼트로 승부를 가린다(핸디 2회 1점).

특히 올해부터는 단체 활성화 차원에서 우승팀에 1백만원, 준우승팀에

80만원의 상금을 시상(연합팀 제외)하고 개막식 경우 최다참가상으로 50만원의 상금을 시상할 계획이다. 또 개막식과 결승전에 재학생들이 대거 참여, 불꽃 튀는 응원전을 벌인다.



총무단 협의회와 경야회가 공동 주관, 동문·가족 및 재학생 등 참여를 극대화하며 재미있는 경기운영 등을 도출해 신바람나는 대회로 승화시킬 계획이다.

용마의 밤 축제는 모든 동문이 참여, 우정과 긍지를 갖고 다시 도약할 것을 다짐하는 결속의 광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교직원동문다수영진



경고 교장 김성찬 (12회)
경중 교장 주기민 (16회)

학양성에 전념해온 진영호 전 개금고 교장(6회)을 비롯해 김도태(6회·전 하남중) 김귀용(7회·문현여중) 김봉길(8회·경남고) 박주환(남도여중) 이봉원(다대고) 전병우 교장(이상 10회·주례여고)과 김정구(9회·경일중) 교감 등 8명의 동문이 정년퇴임했다. 이번 인사에서 영진된 동문들은 다음과 같다.

서부교육장 박종술 (11회) 연천중 교장 김태홍 (11회) 부산상 교장 김향운 (13회)

최근 단행된 부산시내 각급 교원인사에서 박종술 동문(11회·전 부산교육원장)은 서부교육장으로 영진, 9월 1일 부임했다. 특히 경남고 교장에 김성찬 동문(12회·전 경남중 교장), 경남중 교장에 주기민 동문(16회·전 문현여고 교감)이 나란히 발탁돼 앞으로 모교는 학력증진 등 교육환경 개선이 크게 기대된다.

이밖에 부산상고 교장으로 발탁된 김향운 동문(13회·전 부산고 교감)과 부산정보여고 교장 정장웅 동문(14회·전 경남여고 교감) 등 17명의 동문이 교장 교감 등으로 영진했다. 한편 40여년간 교단을 지키며 후

제46회 동기회 출범

창립총회 개최 ... 초대회장 김봉수 선임



제46회동기회 창립총회가 8월21일 오후 5시 부산 중구 신창동 새부산에식당(22회 이인준 중구 청장 운영) 2층 특별실에서 새내기 동문 45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재경동기회 이병연 회장 등이 참석해 더욱 빛내주었다(사진).

이날 창립총회는 회칙과 예산안 등을 승인한 후 임원선출을 통해 초대 회장에 김봉수(사진), 총무에 송영주 동문을 선임했고 부회장과 감사선출은 회장에게 위임했다.

송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창립총회에서 김 초대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창립총회에 많은 동문들이 참석하

도록 준비위원회가 꾸준히 노력했으나 기대 만큼 되지 않았다"며 "집행부는 동문 여러분의 협력 속에 동문 찾기운동을 대대적으로 벌여 모범동기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영 본부회장(6회·정소영치과위원장)은 격려사를 통해 "동창회의 일원이 된 제46회동기회의 출범을 축하한다"며 "열정적 노력으로 가장 뛰어난 동기회가 되도록 전동기생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다.

정 본부회장은 격려사에 앞서 '경남중고 제46회동기회'회기와 격려금을 전달했다. 이어 최득호 본부사무국장(11회)은 동창회 조직을, 김병수 총무(22회)는 동창회 현황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일행은 이날 오후 7시 부산 중구 부평동 '한성족발'로 자리를 옮겨 창립단합회를 열고 오랫동안의 재회를 기뻐하며 그간의 회포를 맘껏 풀었다. 집행부는 9월11일 오후 6시 부산 사하구 하단동 동아대 입구 '돼지꿈'(41회 박인재동문 운영)에서 첫 동기회를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뉴질랜드 활성화 "재충진"

뉴질랜드지역동창회는 8월20일 오후 6시30분 오클랜드의 '서라벌 뷔페'에서 '99정기총회를 열고 차준호 동문(18회·옛이름 순도)을 신임회장으로 선출하고 집행부를 새로 구성했다.

이날 총회는 결산보고와 예산안을 승인한 후 임원개선을 통해 회

장을 선출하고 이어 부회장에 이상수(23회·K-F 뉴질랜드), 감사에 장세영(27회·일진임원개발), 총무에 김승덕 동문(28회·카턴호텔)을 각각 뽑았다.

차 신임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미려이나마 최선의 노력을 다해 이곳 동창회 발전을 위해 봉사하

신임회장 차준호(18회) APEC참석동문 돕기로

고 새로운 동문을 적극 발굴하여 활성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문들은 9월에 오클랜드에서 열리는 APEC회의에 즈음해 정치 및 경제계 등 관련 동문들이 방문할 경우 최선을 다해 환영하고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다짐했다.

신현호 세무회계사무소 (부설) 조세전략연구소

저는 중부세무사장을 마지막으로 지난 30년간 몸담았던 정든 국세청을 명예퇴직하고 이제 세무사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30년간 세무관사에서 익힌 경험과 지식, 연구를 통한 세정이론과 실무를 바탕으로 **세무컨설팅서비스**를 제공하는 '신현호 세무회계사무소(부설 조세전략연구소)'는 특히 조세생산을 강화하고자 **법무법인 인창에(대표 변호사 유정동·30회)**와 **전북지역 제휴로** 조흥은행 4·5층에 개설하여 재산권에 관한 납세자의 권익 보호와 세정형조자로서 책무를 다하는 데 혼신의 힘을 바치고자 합니다.

대표/세무사 **신현호** (14회)·본부동창회 이사

부산시 중구 동광동 1가 2 조흥은행 부산지점 5층
TEL (051)243-5533 FAX (051)243-5333

- 프로필
 - 경남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고려대학교대학원 졸업(세무행정 전공·석사)
 - 각 세무서 부가가치세·소득세·법인세과장
 - 부산지방국세청 부가가치세과장, 법인세과장
 - 거창·창원·중부세무서 서장
 - 동의대학교 중소기업대학원 강사
 - 양산대학 겸임교수(교육부장관 승인)
 - 콜롬보계획에 의한 아세아 조세 세미나 참석차 도일(75. 1)
 - 미국의 법인세·조사제도 연구차 도미(92. 11)
 - 「한국을 움직이는 인물들」 선정 (중앙일보사 창간 30주년)
- 저자 저서
 - 1987년 알기 쉬운 부가가치세법
 - 1989년 한국 경제난국에 대한 대처 방안
 - 1998년 영농법인설립과 세무(3판)
 - 1998년 세무관리론(5판)
 - 1999년 신현호칼럼집 등 다수
- 상담역·고문·논설위원
 - 부산방송(PSB) TV세무상담 상담역:매주 금요일 08:00~08:30
 - 월간 '부산' 세무상담역
 - 부산산업경제신문 편집위원 겸 세무상담역
 - 조세금융신문 논설위원 겸 세무상담역
 - 한국세정신문 세무상담역
 -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회 조세전문위원
 - 법무법인 청해 고문 등

토털서비스 = 세무상담 + 세무대리 + 세무조사 + 불복청구 + 경영분석 및 자문 + 경영·노무관리 + 파견서비스

시 평

경남고를 떠나면서

고산준령 구덕산봉 위로 푸른 하늘이 유난히 높아만 보이는 이곳 경남고등학교에서 정년을 맞이하면서 감회의 한 귀절을 읊기려 하니 새삼 붓끝이 무디기만 합니다.

교직의 첫 출발을 모교에서 시작하여 이 날을 맞이하기까지 격려해 주신 은사님들, 그리고 걱정하여 주신 선후배 동문 여러분, 모든 학부모님들, 그 보답할 길 없는 크나큰 은공과 인연의 고마움에 엄숙한 마음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주어진 소임을 수행하는 가운데 선후배 동문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 일들이 어찌 한두가지겠는가 하는 자괴심을 가누지 못합니다.

동문 여러분의 성원과 격려에 힘입어 모교 발전에 부족하지만 기여할 수 있었음을 부끄러운 저의 더없는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1세기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자랑스

런 경남고등학교가 더욱 빛나는 명성으로 번창하기를 바라는 소망은 생각할수록 간절하기만 합니다.

그러나 이 간절함이 어찌 미력한 이 한 사람의 심정뿐이었습니까? 이만 오천 동문 각자가 다 가슴 깊이 간직한 모교에 대한 바람일 것입니다. 이러한 동문들의 소망의 승화로 내일의 경남고의 영광을 위하여 우건의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모든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한결 같은 사랑입니다.

경남고등학교가 자랑스런 명성을 얻게 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을 들 수 있겠으나 그 중에서도 동문들의 모교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입니다.



김 봉 길

제8회·전 경남고 교장

즉 경교의 명성은 동문들의 모교사랑에서 생성, 유지되고 앞으로도 그로 인해 좌우된다는 것은 분명한 이치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모두가 같이 생각해야 할 것은 모교에 대한 사랑은 동문 각자가 자기만의 것으로 생각한 나머지 다른 동문의 모교애를 저해하는 경우는 없는지? 그리고 사회와 제반 여건들이 변하고 바뀌었다 해서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사랑의 열이 조금이라도 식어 간다면 경남고의 내일은 논해 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동문들의 모교에 대한 마음가짐이 혹시라도 무관심이나 방관적인 인상 등으로 변하리라는 것도 생각할 수 없습니

다. 또 대안없는 비판 같은 것은 발전은 커녕 과멸을 부른다는 쉬운 이치도 우리 모두가 유념해야 할 것이며 참여와 이해는 구체화된 모교사랑 그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끝으로 화합이 아니고는 사랑도 참여도 빈말이며, 의견이 다르고 견해가 엇갈리는 것은 집단의 생리이지 이로 인해 경교인의 힘이 갈라지고 전체가 약해진다면 대의를 망각하는 어리석음일뿐입니다. 우리는 이를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동문들의 모교사랑은 참여와 화합으로 결집하여 내일의 크나큰 경남고로 키워가야 할 것입니다.

해마다 5월이면 동문들의 모교 방문 행사, 그럴 때마다 느끼는 모교 사랑의 일체감과 야구 경기장에서 우승의 환호로 경남고의 저력을 서울 하늘에 펼쳐주던 눈물겨운 그 날들의 감격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김병호 (15회) 동아방송대 학장 취임

김병호 동문 (15회·전 KBS보도본부장)은 7월22일 동아방송대학 학장으로 취임했다. 고려대 정외과를 졸업한 김동문은 국제신문 및 부산일보 기자를 거쳐 KBS 정치부장, 보도국장, 보도본부장, LG상남인론재단 이사, 15대 대통령선거TV토론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했다.

김동문은 "방송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동아방송대학이 특성화교



육을 가속화하기 위해 언론인 출신인 자신을 학장으로 영입했기 때문에 사명감이 더욱 투철하다"고 말했다.

동아방송대학은 방송보도 영상제작 방송기술 등 특화된 12개 학과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 일부 대

학이 대학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기자 프로듀서 출신 언론인이나 텔런트 등을 겸임교수 및 초빙교수 등으로 임용한 예는 있으나 기자출신 전문 방송인을 대학의 학장으로 영입한 것은 이 대학이 처음이다.

김학장은 "동아방송대학은 기존 방송국을 능가하는 최첨단 디지털 방송기자재를 갖추고 있는 등 교육환경이 뛰어나다"며 "국내 유일의 방송 특성화 대학이 되기 위한 작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각오를 다졌다.

조창범 (18회)

주체코대사 발탁

조창범 동문(18회)은 주유엔차석 대사 재임 중 8월14일 주체코대사로

발탁됐다. 서울대 법대를 졸업한 조동문은 외교고시(6회)에 합격, 외무부에서 외교관 수업을 시작한 이래 동구과장, 주캐나다대사관 참사관, 주오스트리아 공사, 본부 구주국장, 주유엔차석대사 등을 역임했다.

한국야구계 '큰 별' 장태영동문 타계

명투수·명타수·명감독으로 명성 떨쳐

한국 아마야구계의 '큰 별'이자 모교 야구의 '정신적 지주' 장태영 동문(4회)이 8월 2일 새벽 3시



서울 중앙병원에서 별세, 5일 고향인 경북 선산시 근교 선영에 안장됐다. 향년 70세.

'명투수 명타수 명감독'으로 각광을 받은 장동문은 45년 모교 야구부 선수로 출발, 일약 스타덤에 올랐다. 47~49년 황금사자기 컷 3연패와 47~48년 청룡기 2연패 등 '무적 경남고시대'를 열었던 건인자로 40년대 신화적 투수였다. 당시 별명은 '태양을 던지는 투수'. 좌완이면서 시속 1백 40km대의 경이적 강속구를 던졌기 때문이다.

장동문은 이후 서울대 상대에 입학해 실력을 과시, 학구파라는

또다른 유명세 속에서 55년부터 59년까지 국가대표 에이스로 활약했고 타격에서도 발군의 능력을 발휘해 57년 백호기대회에서 11타수9안타(0.818)의 단일대회 최고타율을 기록했다. 이 기록은 아직까지 깨어지지 않고 있다.

또 장동문은 62년 상업은행 창단 감독으로 출발한 이래 10여년간 팀을 정상에 올려 명감독으로도 이름을 떨쳤다.

71년 국가대표 감독으로 제10회 아시아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받았고, 대한야구협회 부회장, 한국야구위원회 규칙위원 및 상임위원, 아시아야구연맹(BFA)기술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장동문은 모교 야구부 지도를 비롯해 최근까지 동대문구장을 찾아 선수들을 격려하는 등 아마야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허태열 (18회)

행정학 박사학위 취득



허태열 동문(18회·한나라당 부산북·강서을지구당 위원장)은 8월 23일 건국대 후기졸업식에서 행정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학위는 논문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결정 참여자간 네트워크에 관한 연구'.

허동문은 이 논문을 통해 지자체의 정책결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자나 단체들이 어떠한 상호간의 연계를 갖고 어떠한 정도로 참여하고 있는지를 연구·분석했다. △성균관대 법학과 졸업 △내무부 총무과장 △민방위본부장 △충북도지사 △산업관리공단 이사장.

경찰청 동문

- △ 오경중(19회)=부산진경찰서 서장.
- △ 김석구(19회)=부산연산경찰서 서장.

국세청 동문

- △ 안승원(21회)=서울지방국세청 중부청 감사관.
- △ 이주성(22회)=서울지방국세청 중부청 조사2국장.
- △ 이부식(23회)=서울지방국세청 중부청 조사1과장.
- △ 이진화(26회)=서울지방국세청 남세지원국장.
- △ 이준성(30회)=울산세무서장.

제27회동기회 월례회 모임

제27회동기회는 8월27일 오후 7시 부산 동구 범천동 크리스탈뷔페에서 월례회를 열었다.

김태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모임은 45명이 참석, 취미클럽(등산·바둑·골프·테니스·낚시)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고, 동기회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애쓰는 김현수동문에게 칭찬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다.

특히 변영철(SAKO 무역) 최기석 동문(태양금속 이사) 등이 졸업 후 처음으로 이날 모임에 나와 반가움을 나눴다. 일행은 김희장 스폰서로 부산 수영구 남천동 '탄실내집민속촌'에서 2차 여흥을 즐겼다.

제8회 동기회 임원 일동

고문: 孔相泰, 金甲得, 魯善泰, 李潤祚, 李春基, 張赫杓

수석부회장: 金理坤, 부회장: 文玉鉉, 白玉鉉, 沈裁鴻, 李相軾, 林金植, 趙晟來

감사: 李昌雨, 李熙玉, 총무: 趙鳳錫, 재무: 鄭仁浩

이사: 姜聖道, 具本攝, 金文覺, 金鳳吉, 金尙坤, 金相植, 金時垞, 金乙煥(영도), 金乙煥(감만), 金在汎, 金鐘雲

金澤奎, 都垠瑩, 陸允誠, 文東現, 朴世昌, 朴永佑, 裴基炫, 裴德洙, 尙基鍾, 徐錫東, 徐鎮根, 成亥源

申敬華, 沈載斗, 安秉權, 安鍾烈, 嚴德良, 禹東千, 李相穆, 李成鎬, 李陽熙, 李長成, 李泰浩, 李顯洙

李浩元, 林乙洙, 張吉榮, 張喜俊, 鄭金出, 丁垠根, 曹大俊, 崔敬泰, 崔洛秉, 崔允植

가족캠프 한마당 동기회별로 확산 우정과 추억 '주렁주렁'



해변 페스티벌에 참석한 제16회 동문들 중 '안팔리는 건달'들이 품을 잡고 있다.

제16회, 금세기 마지막 '해변페스티벌' 성황

경부바둑대회 함께 열려

제16회동기회 금세기 마지막 해변 가족캠프가 7월 30일~8월 1일 사흘간 부산 해운대구 송정동 바닷가의 20년 단골인 '송정민박집'에서 열려 전야제 캠프파이어를 비롯해 경부바둑대회, 해양훈련, 장기자랑 등으로 친교를 쌓았다.

홍정길 회장이 주재한 이번 가족캠프는 재경 일류기우회 송태남 회장 등 13명의 서울 동문들을 포함해 연인원 1백10명이나 참석, 대성황을 이뤘다. 특히 올해에는 행사 이틀째인 31일 오후 1시부터 부산일류기우회(회장 신태규) 초청 제1회 경부전선바둑대회가 해변축제와 함께 열려 재미가 더했다.

이번 행사를 기획·준비·집행하는 데는 홍회장을 비롯해 회장단과 옥윤식 동기회사무국장, 강종국 일류산악회장 등의 헌신이 크게 작용했다.

경부바둑대회는 늦은 밤 서울팀의 단재전 우승 확정으로 마감됐고, 일육일당 40여명이 벌인 뒤풀이는 지

하 단란주점을 초도화시키는 '열광의 페스티벌'로 엮어졌다.

제28회, 내원사 근교서

제28회동기회(회장 서영대) 가족동반 여름캠프가 7월24~25일 이틀간 경남 양산 근교 내원사 일대에서 바베큐 파티 바둑대회 노래자랑 세상살이특강 하이킹 물놀이 등 프로그램으로 펼

쳐졌다. 이날 캠프는 동문·가족 70여 명이 참석, 대성황을 이뤘고 졸업후 처음 모임에 참석하는 동문들도 더러 있어 우견식 준비위원장을 비롯한 집행부가 즐거운 비명을 질렀다.

첫날인 24일 이팔기우회가 마련한 정기 바둑대회로 일부 동문들은 밤을 새우며 수단을 즐겼고, 또 한편에선 밤 늦게까지 열린 가족노래자랑으로 우정과 친교를 쌓았다.

특히 이날은 부산시가 선정한 '올해의 평등부부상'을 수상한 정인식 박광희부부의 '세상살아가는 이야기'를 비롯한 몇 개의 강좌도 마련돼 '마음의 공간'을 가득 채우기도 했다.

다음날은 함께 산책을 하며 내년부터는 이 행사를 정례화하고 문화행사로까지 확산시켜 더 많은 동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여건조성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일행은 25일 내원사 계곡에서 신나는 물놀이를 끝으로 아쉬운 발걸음을 돌렸다.

그래도 몇몇 동기들은 "이날 행사의 백미는 첫날 저녁에 가졌던 바베큐 파티였다"며 "아직도 IMF가 현실문제(?)인가 보다"라고 촌평했다.

바베큐 파티·노래자랑·하이킹 등 다채



지리산 계곡에서 1박2일 우정을 심은 제31회 동문·가족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제31회 서·사하회, '지리산 용마의 밤'

곰삭은 흥어의 '일품' 장마비도 화합 못말려

제31회동기회 서구사하구지역회는 8월7~8일 이틀간 지리산 중산리 밀서지농원에서 제1회 가족캠프를 열었다.

정철수 회장이 주재한 이번 캠프는 7일 선발대의 출발로 시작해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이어진 13팀의 가족이 참석했다. 황도방으로 꾸민 목조건물과 미끄럼틀을 겸비한 수영장 등 산 속의 휴양시설치곤 한껏 맛을 부린 농원에서 짐을 풀었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물놀이로 첨벙거리는 아이들의 아우성엔 캠프의 서곡을 장식했다. 동문들은 저녁 '용마의 밤' 준비를 위해 근처 노래방에서 반주기세트를 운반하느라 구

슬땀을 흘렸다.

오리불고기와 닭다리를 안주삼아 막걸리 사발을 주고 받으며 우정을 심었다.

여행의 하이라이트인 '용마의 밤'은 2층 연회장에 마련됐다. 아이들의 신나는 춤과 노래, 부인들의 수줍은 열창으로 어두워져가는 지리산자락을 한껏 밝혔다. 농수산물 경매를 하고 있는 이승진 동문이 회사한 푸짐한 과일과 집행부가 마련한 상품으로 여흥은 더욱 즐거웠다.

몇몇 부부들의 2차 모임은 손수 동문이 장장 12시간이나 걸리는 수고를 마다 않고 전라도에서 가져와 준비한 흥어의 곰삭은 맛과 함께 무르익었다.

밤새 내린 장마비로 귀가의 안전이 걱정되긴 했으나 아침식사 뒤 간간히 내리는 비로 나름대로 전날의 여흥을 되새김질하기 알맞은 날씨였다. 아이들의 물놀이는 떠나기가 아쉬운지 뿌리는 비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됐다. 부인들은 군데군데 모여 자식자랑으로 신났고 동문들은 바둑과 담소로 지친 심신을 달랬다.

일행은 남편들이 끌어주는 따뜻한 라면을 점심으로 먹고 제2회 가족캠프를 기약했다.

"양념 좀 골고루 하고 푸짐하게 장만하세요."

바베큐 파티 등으로 '세상사는 재미'를 체험하고 있는 제28회 동문·가족들이 내원사 계곡에서 한여름 더위를 잊고 있다.

면학분위기 쇄신 등 교육환경 개선 역점

"졸업한 지 40여년만에 모교의 장래를 책임져야 하는 위치가 되어 '영원한 마음의 고향'에 돌아와 감회가 깊습니다."

경남중 교장 재임 중 9월 1일 경남고 제15대 교장으로 부임한 김성찬 동문(12회)은 "또 한번의 금의환향이어서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뛰어난 업적을 쌓고 정년퇴임한 김봉길선배님의 대를 잇게 돼 책임감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진다"는 심경을 털어냈다. 김동문처럼 모교인 경남중 교장을 거쳐 경남고 교장으로

신임 경남고 교장 김성찬(12회)

바로 영진한 것은 처음 있는 이례적 경사이다.

"어느 학교에 가든 사령탑의 위치는 어떻게 하면 이 학교의 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인가고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모교에서의 고민은 더욱 진한 농도로 전개될 것입니다."

김동문은 전임 선배 교장들의 업적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는 자신을 담금질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모교의 역사와 전통에 걸맞게 지적체(智德體)의 실천 및 성취도에 배전의 연구와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국가와 사회의 동량배출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에 학력증진에 힘을 쏟고 교육환경을 더욱 개선하여 야구부 중흥을 비롯해 특활의 활성화에 열정을 바치겠습니다." 김동문은 부산대 사범대와 동아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했고 남부교육청 장학사 및 중등교육과장, 해운대교육청 중등교육과장, 용호중 교장, 용호여중 교장, 경남중 교장 등을 역임했다.

는 신념을 밝혔다.

주동문은 동문학부모들이 많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학부모들이 학교에 대한 순수한 애착을 갖도록 인식대를 새롭게 형성하겠으며 학력배양과 교육분위기 쇄신, 교육기자재 확충 등에 능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주동문은 모교 생활담당 교사와 '구덕산을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시무시한 훈육주임을 거처고 모교 교장에 시교육감을 역임한 주상우 은사의 친조카.

경남상고 경남중 중앙여고 개교고 등 교사와 시교육청 장학사, 문현여고 교감 등을 역임.

전인교육 통해 활달한 청소년 육성

"늘 염원했던 모교 교장으로 첫 발을 내딛고 보니 짧은 교직생활 중 가장 영광스러운 일임을 새삼 느꼈습니다. 그간 성원해주신 동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문현여고 교감 재임 중 9월 1일 경남중 제17대 교장에 부임한 주기민 동문(16회)은 취임 소감을 이렇게 밝혔다. 주동문은 전임 김성찬선배의 뒤를 잇게 돼 매사를 조심스럽게 행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경남중 경우 최근에 이르러 정

신임 경남중 교장 주기민(16회)

형석(6회) 김태곤(6회) 김성찬 선배(12회)와 제 자신까지 4대에 걸쳐 동문교장이 심혈을 쏟았고 전력투구하게 돼 미래가 밝다고 생각합니다."

주동문은 철저한 전인교육을 통해 후배이자 제자인 '경남중학생'을 활달하게 성장시키며 실력을 갖출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기별야구 개선·회보·총명부 제작 등 본부사업 활성화 논의

경총회 동정

제30회 이후 총무회의

동창회 활성화를 추진하는 현안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경총회(총무단 협의회) 소그룹회의가 8월 9일 오후 6시30분 부산 중구 중앙동 '오복식당'에서 열렸다. 옥윤식 간사장(16회)이 주재한

이날 회의는 제30회 이후 동기기총무 18명이 참석, △기별야구대회 개선 방안 △'99 용마의 밤 행사 계획 △본부회보 제작 및 운영 방안 △총명부(2000년도판)제작 등 동창회 행사 및 사업에 대해 심도 깊게 의견을 교환했다.

한편 본부사무국은 경총회로부터 이날 토의된 소그룹회의 내용을 전달받아 회장단회의 및 이사회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다.

제32회동기회 사랑방 마련

제32회동기회는 7월14일 오후 6시 부산 남구 대연6동 1763-1 원곡빌딩 502호에 동기기사무실을 열고 자축파티를 열었다.

이병준 회장이 주재한 이날 개소식은 낮 12시부터 오픈, 동문들이 모여 들기 시작, 모두 50여명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

동기기사무실은 안원철 동문(부산 예술문화대학 기획실장)이 동문들의 결속을 다지기 위해 자신의 건물 일

부를 기증했고, 비품 및 기타 집기들은 산악회 테니스회 낚시회 편성부 등에서 협찬했다.

이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랑방을 회사한 안원철 동문에게 감사한다"며 "동문들이 언제든 사무실을 방문해 서로 어려운 일들을 의논하고 도와가며 정보를 나누고 우정을 돈독히 하자"고 말했다.

※사무실 전화 : 051-632-6212.

우승 차진한·준우승 박장석 경구회 7월 바둑대회

제9회동기회 바둑동호인 모임인 경구기우회는 7월31일 부산 부산진구 부전1동 122 동기회사 무실에서 제3회 친선대회를 열고 우의를 다졌다.

화태진 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대국에는 23명이 참석, 성황을 이뤘다. 리그전으로 열린 대국에서 차진한 동문(3급)이 9전7승으로 우승을, 박장석 동문이 8전6승으로 준우승을 차지했다.

참가자 전원은 대국 후 '박가네' 식당에서 회회장이 스폰서가 된 회식을 즐겼다.

성지순례·치매병원격려금 일육경불회 집행부 유임

제16회동기회 재경일육경불회는 6월27일 회원 23명이 참석한 제4차 성지순례행사를 충북 괴산 공립사에서 열었다.

허승효 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를 치른 일행은 귀가길에 초청 약수온천을 경유한 후 동기생 강홍조 동문이 운영하는 청주치매병원을 방문, 강원장에게 격려금 50만원을 전달했다.

한편 경불회는 이날 정기총회를 열고 허회장과 이병숙 총무(청주새관장)를 유임시켰다.

지리산 대청골서 경팔산우회, 여름수련회

제8회동기회(회장 박동렬) 경팔산우회는 8월9일부터 11일까지 사흘간 지리산의 심산유곡인 의신마을 대청골에서 하기수련회를 갖고 활력을 되찾았다.

심재홍 회장이 주재한 이번 수련회에는 20여명의 동문들이 참석, 심신을 단련하면서 우정을 더욱 깊게 심었다.

특히 동문들은 낮과 저녁별로 두조로 나눠 '여생을 값지게 사는 슬기'라는 주제로 계곡공청회(?)를 열어 다양한 지혜를 찾아내기도 했다.

김해지역 부부동반 하계단합회

장유동문 초청... '초원의 집' 이철웅동문 스폰서

김해지역동창회는 8월21일 오후 5시 김해시 장유면 '초원의 집(15회 이철웅동문 운영)'에서 부부동반 하계모임을 개최했다.

장유지역동문들의 초청으로 이루어진 이날 모임은 제4회 동문으로부터 제42회 동문까지 모두 70여명이 참석하여 대성황을 이뤘다.

최태환회장(13회)은 인사말을 통해 "나이드신 선배님들과 젊은 후배가 한데 어우러진 좋은 자리를 마련해준 장유지역동문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선후배가 손잡고 지역사회에서 훌륭한 인재집단으로

인정받는 동문들이 되자"고 말했다.



질병 예방과 양생



이 승 하

제28회·이승하한의원 원장

한의학은 치료 못지않게 질병의 예방과 양생에도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고 있다. 옛날 사람들은 양생의 도를 터득해 절제하는 식사와 규칙적인 생활, 방사를 낭비하지 않아 신색과 용모를 온전히하여 천수를 누렸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술을 물 마시듯 마시고 정욕을 절제하지 않고 물욕과 명예욕이 과다하며 마음의 쾌락과 육체의 향락에만 몰두하니 오십만 되어도 늙은이가 되어버린다고 이천년 전의 약서에 이미 쓰여 있었다.

사유활동과 질병의 발생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정신이 과도한 자극을 받으면 인체의 정상활동에 영향을 미쳐 질병이 야기된다. 노여움이 많으면 간에 해롭고, 기쁨이 지나쳐도 심장에 부담을 준다. 머리 속에 생각이 많으면 비위를 상하게 하고, 근심이 과하면 폐와 대장의 기능이 실조되기 쉽다. 공포를 겪게 되면 신장을 해치게 된다. 즉 인간의 칠정(희노우사비공경)이 과하게 되면 오장육부의 정기를 쇠갈시켜 병이 쉽게 온다. 따라서 평정 유쾌하게 하며 자기의

근심 심하면 폐·대장실조 가을엔 평안·숙면·운동을

환경에 만족하는 낙천적 생활방식으로 건강을 유지해야 한다.

생명은 음식물의 공급에 의존한다. 만약 폭음 폭식에 인스턴트류 등 후미진 음식만 먹다보면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실제로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한 소국에는 국토 사정상 주식으로 오로지 외국산 통조림에 의존한다. 그 결과 전 국민의 90% 이상이 비만

과 고혈압 당뇨병으로 고생하며 평균 수명도 오십 몇 세 밖에 되지 않는다는 기막힌 음식문화가 있다.

고래로 '의식동원'이란 말이 있다. 이는 병의 예방과 치료에 있어서 식사가 의약과 같은 효과가 있다는 뜻이다. 정시 정량의 절제된 신선한 음식 섭취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 주고 있다.

또한 인체와 자연계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인체의 조절기능이 자연의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병사의 침입을 피할 수 없다. 봄과 여름은 생장의 계절로 양에 속한다. 가을과 겨울은 추수·저장의 계절로 음에 속한다. 가을은 물체의 형태가 정해지는 계절로 천지의 기가 긴장되어 맑아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수렴된다. 이때는 마음과 뜻을 안연케 하여, 진행되는 계절의 구조 조정처럼 매사를 하나 둘 정리해야 한다. 지나친 욕망을 삼가고 이루지 못한 뜻을 후회하지 말며 매사에 느긋해야 한다. 또한 야간에는 숙면을 취하도록 하고 적당한 노동과 규칙적인 생활을 영위함이 양생법의 필수조건이다.

아버지들의 아우성

20분쯤 왔을까. 중년의 승무원이 얼굴이 사색이 된 채 배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다. 결국 사고가 나는구나 생각하며 함께 밖을 내다보니 굵은 빗줄이 굵어져 유리창문을 치는 것이었다. 승무원은 기관실로 가 선장에게 엔진을 멈추게 하더니 밖으로 통하는 쪽문을 열고 나갔다. 파도가 삼켜버릴 것인데 어쩌나. 모든 승객들은 초조하게 그 문만 바라보았다. 얼마 후 그 승무원은 빗줄을 처리하고 물에 흠뻑 젖은 채 문을 열고 들어왔다. 승객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다. 나는 괜히 눈물이 났다. 그 승무원을 가서 껴안아주고 싶었다.

몇 년 전 거제도에서 강연을 하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배를 타자마자 높은 파도에 배가 출렁거렸다. 승객들은 넘어지고 물리면서 소리를 질렀다. 승무원들은 바깥봉지를 나누어주며 같이 당황했다. 무슨 사고가 터질 것만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남성을 '아버지'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겼다. 수많은 아버지들이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구나, 아버지들이 벌어오는 돈은 목숨을 바꾸면서 벌어오는 돈이구나, 그 쪽문을 나서면서 그 아버지는 얼마나 무서웠을까, 혹시 죽음을 생각했다면 누구 얼굴이 제일 먼저 떠올랐을까, 집에 돌아가서 그때의 심정을 부인과 아이들에게 다 말했을까, 말을 안했다면 자기 혼자서는 어떤 생각을 했을까. 등등 여러 생각에 빠졌다.

무엇을 위해 그 고생을 하는가. 명예도 좋고 권력도 좋지만 그런 것이 다 없어지고 나서도 그래도 살아야 한다면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결국 남는 것은 무엇일까. 끝까지 버티게 해주는 힘은 바로 '아버지'라는 것. 잘 살아야 하는 마지막 이유는 바로 자녀들 때문이고 결국 남기고 가는 것은 자신의 삶을 이어가는 생명들이다. 나의 아버지도 나를 이렇게 남겨놓고 갔다.

'아버지'들이 변해가고 있다. 큰 문제에만 신경을 쓰던 아버지들이 삶의 작은 문제에도 발뺌하고 나서고 있다. 자녀들의 문제에 뛰어들고 있다. 음란물로 비틀거리는 아들들을 보고, 잘못된 접대문화 속에서 망가져가는 딸들을 보면서 춘천의 콜택시 기사 아버지들은 감시단을 만들었다. 군대마다 새 바람이 불고 있다. 예비아빠로서 결의를 다진다. 성폭행 당한 딸을 붙들고 아버지들이 울고 있다. 생존과 생명을 함께 생각하고 있다.

생명을 아끼며 작은 것을 소중히 하는 정신이 기업을 살려내는 그런 시대에 접어들었다. 남성에게 '아버지'로의 변신, 그것이 바로 아우성의 출발이다.

부인석



구 성 애

내일신문
성교육센터 소장.
구 소장은
송세경 동문
(25회·부산시보
편집위원)의
부인이다.

제32회 회보창간

타블로이드판 8쪽 구성 읽을거리·정보 등 다양

제32회동기회도 8월16일자로 회보를 창간했다. 타블로이드판 8쪽으로 기획·편집된 이 회보는 1면에 회장 '창간사'와 축사 '융합하는 그 대단원의 힘'(김대식·시인)을 실었다.

이병준 회장(삼성안과 원장)은 창간사를 통해 "동기회보는 바로 우리들의 얼굴"이라며 "어려운 일에 부딪치더라도 동문들이 서로 힘을 합쳐



이를 극복하자"고 말했다. 회보 2~8면에는 수상 및 취미 생활(낙시), 21세기 자녀교육, 건강관리와 성인병 예방, 가족공트, 여름철 차량관리, 재테크, 영국단상, 임원소개, 동문동정, 생활상식 등 읽을 거리와 정보가 알차게 엮여져 있다.



대경명란 (주)

강 창 수(21회)

본 사 부산광역시 서구 서대신동 2가 70-2
TEL : (051)255-7211~3
FAX : (051)255-7214
서울영업소 TEL : (02)593-6163

용마자동차매매상사

신평자동차매매업단지내 (14호)



중 고 자 동 차
매 매 전문업체!

안녕하십니까?
본 상사는 다년간 신차영업에서 다진 Know-How로 새차에서 중고차에 이르기 까지 자동차 Total Market입니다. 최상의 서비스로 동문 선후배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대표 최규철(37회)

과장 고영민(40회)
과장 최봉재(40회)

부산시 사마구 신평동 370-6
TEL : 051)294-0055
FAX : 051)294-0056

용마가족 여러분의 투고를 환영합니다.



- ◆ 동문과 가족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 ◆ 각 동기회·지역동창회·해외지역동창회·직능동창회는 각종 행사와 '어디서 무엇을', 제언, 문예물을 수시로 보내 주십시오.

보내실 곳 : 경남중고동창회 회보편집위원회
부산광역시 중구 부평동 4가 52-3
골든 오피스텔 4층 411호
☎ 245-7551~3
(FAX)245-7550



회보 '18번지...' 3호 발행 제18회동기회

제18회동기회(회장 강동섭)는 회보 '18번지(6통4반)친구들' 제3호를 8월7일 발간했다.

이번 호에는 목우정 경문18회 일괄회 지역모임의 최근 소식 등과 동문들의 영진소식 등을 다루었다.

특히 인물확대경과 유머코너 정보통신 용어 해설란이 신설되어 더욱 다양한 정보를 전하고 있다. 한편 회보는 제2호부터 '18번지(6통4반)사람들'이라는 제호에서 '18번지(6통4반)친구들'이라는 이름으로 바꿨다.

회보 제호의 '18번지'는 18회를, '6통4반'은 졸업년도인 64년을 뜻하는 것으로 '64년도에 졸업한 18회 친구들의 소식을 담고 있는 회보'라는 정의를 내릴 수 있다는 것이 회보 편집자의 설명이다.

제18회 동기회사무실 이름 공모 木友亭(김태군 작) 당선작 뽑혀

제18회동기회 사무실 이름이 '목우정(木友亭)'으로 결정됐다. 한달 동안 상금 10만원을 내걸고 동기회의 이벤트로 마련한 명칭 공모에는 모두 35건이 응모, 심사 결과 김태군 사무국장(이)이 응모한 '목우정'이 으뜸상의 영예와 함께 상금 5만원을 차지했다.

김동문은 "목(木)자를 파자해 보면 십(十)자에 팔(八)을 더한 것이 '18회'를 의미하며, 50대 중반의 나이로도 항상 나무처럼 푸르고 건강하게 살자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설명했다.

버금상은 김길재 동문의 경목루(慶木樓), 장려상은 육병규 동문의 육초당(陸草堂)이 각각 차지해 3만원과 2만원씩의 상금을 받았다.

경목루는 '경남고 18회'라는 뜻이 걸맞아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육초당은 '땅에 나는 풀처럼 깨끗하게 살아가자'는 의미가 좋아 장려상을 차지했다.

38년만의 '반창회' 감격의 재회

제15회 3학년8반 '삼팔회' 경북 친구들 부산 송도 앞바다 서울횃집서 단합회 열어

38년만에 꽃핀 재회의 감격이 부산 송도 앞바다에서 넘실거렸다.

제15회동기회(회장 정기문) 3학년 8반 출신 삼팔회 경북친선단합회가 8월7~8일 이틀간 부산에서 열려 감격과 추억으로 채색됐다.

7일 오후 7시30분 부산역에 도착한 서울 동문 13명은 부산의 15명과 재회의 기쁨을 나누는 후 송도의 '서울횃집'에서 전야제를 즐겼다.

조일랑 총무의 사회로 진행된 잔치는 홍상석 부산회장 환영사와 이철수

서울회장의 답사, 정기문 동기회장의 축사를 겸한 덕담, 축배 등으로 이어졌다. 2차는 '폼으로 살고 폼으로 죽는다'는 단란주점 '폼생폼사'에서 노래경연으로 장기를 뽐냈다.

특히 중국 광둥성에서 6천여명의 종업원을 거느리며 기업을 운영하고 있는 임종구 동문이 참석해 자리가 더욱 돋보였다.

타워호텔에서 하룻밤을 묵은 서울 동문들은 뒷날 8일 오전 10시30분 열청소 근처 암남공원을 한바퀴 돌며 추

억을 되새긴 후 '송도 공원레스토랑'에서 무한히 펼쳐진 수평선을 감상하며 오찬을 냈다. 이들은 추억어린 명소



제15회 3-8반 친구들이 38년만에 부산 송도 '서울횃집'에 모여 추억을 만들고 있다.

제15회 가람회 월례회

제15회동기회 가람회 8월모임이 8월11일 오후 7시 부산 동래구 온천동 '럭키횃집'에서 열렸다.

20년 전통을 자랑하는 가람회는 이날 회원 정옥중 안경숙 김창구 이정부 김중광 임영길 김황영 이종희 김승일 9명이 모두 참석해 결속을 과시했다. 이들은 이어 동래호텔 가든코너와 노래방에서 생맥주 등으로 끈끈한 정을 재확인했다.



▲ 앞줄 오른쪽부터 김광희(16회)·한사림 건너 나근태(24회)·韓承東(29회)·林得松(27회), 가운데 줄 오른쪽 두번째 申九東(30회)·세번재 鄭圭弘(30회)·왼쪽 朴永守(29회), 맨 뒷줄 오른쪽부터 李鍾明(19회)·金址昌(23회)·姜炳哲(29회) 등

東慶會 산우회 '깜짝 결성' 첫 후지산 정복에 3명 고투

이근배(24회) 송별회

일본 도쿄지역동창회(東慶會)는 7월21일 오후 7시 이곳 스즈노키축지점(築地店)에서 한빛은행 도쿄지점 부지점장으로 3년간 봉직하다가 서울 본점으로 발령이 난 이근배(24회) 송별회를 열었다.

김광신 회장(16회)이 주재한 이날 모임에는 동문·가족 등 모두 15명이 참석, 석별의 정을 나눴다. 이 동문은 10여년 전 한빛은행 전신인 상업은행의 오사카지점에서 근무, 일본생

활을 시작한 이래 오늘에 이르렀다. 이날 참석자가 적은 것은 갑작스런 일정으로 연락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

한편 이날 회식중 등산안전이 제기돼 산우회결성을 결의했고 신일회장에 이종명(19회)을 간사에 강병철(29회)을 각각 선임했다.

산우회는 첫 사업으로 후지산(3,776m)등반을 오는 8월 6~7일 실시하기로 했으며 회장과 총무, 한승동 박영수 동문(이상 29회)등이 출정하기로 결의했다.

재경 일육산악회원 32명 8월28일 백두산 정복길에

부인 11명도 도전장

해마다 가을 해외원정등반을 비롯, 매월 왕성한 산행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제16회재경동기회 일육산악회(회장 白憲徹·총무 安寅煥)가 백두산 정복에 나섰다.

재경일육산악회는 8월28일 손재봉 동문의 인솔·지휘 아래 서울 30명(부부 11쌍·싱글 8명)과 부산 이겸일부부 등 모두 32명으로 구성된 북경 경유 백

두산등반대 출정식을 갖고 장도에 올랐다. 재경일육산악회 회원들은 일요일마다 30명 이상 모여 북한산 등 서울 근교 산을 오르는 것은 물론 경기 충청 강원지역 등 유명산을 빼놓지 않고 도전하고 있다. 특히 매월 4~8쪽의 일육산악회보를 칼라판으로 발행, 배포하고 있다. 현재 재경동창회 용마산악회장을 맡고 있는 직전회장인 정일성동문이 안팎으로 헌신하는 덕택으로 산악회가 더욱 활성화되고 있다.

동·문·이·퍼·낸·새·책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한석정(25회) 지음



한석정 동문(25회·동아대 사회학과 교수)은 잊혀지고 버려진 만주국의 건설과 정의 특이성을 재조명한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괴뢰국의 국가효과, 1932~1936'을 최근 펴냈다. '만주국 건국...'은 한동문이 미국 시카고대학에서 받은 박사학위의 논문을 바탕으로 지난 5년간 새로 다듬은 역저(力著)이다. 그간 여러 일간신문들과 5개 전문학회지(한국사회학 역사비평 역사학보 중국현대사연구 한국민족운동사연구)에서 책 내용을 자세히 소개해 오고 있다.

특히 이 책의 내용이 높이 평가된 덕분에 한동문은 미국의 저명한 폴브라이트재단의 초청으로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Irvine에서 8월부터 1년간 한국현

대사회와 역사 등에 관해 강의를 맡게 되었다.

'만주국 건국...'은 △제1장 국가의 효과(서론) △제2장 비적과 국군 △제3장 국군과 경찰 △제4장 '가련한 인민' 혹은 식민지의 복지 국가 △제5장 '만주국민' 혹은 만주국의 민족형성 △제6장 신징(新



京)의 황제 등으로 엮여져 있다. 한동문의 이론적 자원은 미셀푸코의 권력기술론이다. 국가가 스스로의 존재를 사회에 드러내고 마침내 사회를 장악하는 방법은 다양한데 여기에는 고전적인 폭력행사도 해당되고 효율적인 관료제와 훈련된 군대도 포함된다. (동아출판부 펴냄·값 7,500원).

◆ 국내가전 및 수입가전 유통 전문회사

(주)매직프라자 (주)신한일가전

대표 정 하 태 (34회)

(주)매직프라자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529-1 (사상터미널 옆 르네시떼 5층)
TEL. (051)319-5 8 8 0
319-6 8 7 9
319-6 8 8 0
FAX. (051)319-5 8 7 9

(주)신한일가전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부전동 29 (부산전자 종합상가 2층 257)
TEL. (051)804-7 7 7 9
804-0 8 0 0
809-7 2 0 0
FAX. (051)805-1 2 7 1

OLIVE OIL
"신이 주신 자연의 선물"
Dina
100% 올리브 식용유

노블 디나 올리브 식용유·비누

- 올리브의 원산지 지중해 연안의 모로코산
- 39홀소핑 99년도 히트상품
- 올리브유는 다이어트 식품 (99년 7월 10일자 : 동아일보, 한겨레 신문게재)

(주)유림통상

상무이사 박 철 수(27회)
부산광역시 진구 범천1동 857-6번지
TEL : (051)631-0303(代)
FAX : (051)631-0312

5급 신재욱 '고수 킬러'... 우승 영광

아마5단 등 줄초상 연출 이철기우회 7월 바둑대회

제27회동기회 이철기우회 주관 7월 친선바둑대회가 7월25일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국기원 연제지원(백승아동문 운영)에서 열려 신재욱 동문(5급으로 승급)이 기라성같은 고수들을 물리치고 우승을, 신임성 동문(2급)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강병훈 기우회장이 주재한 이날 행사는 여름방학에다 무더위 기승 때문에 다들 바다나 계곡으로 피서를 떠났음에도 강희장을 비롯해 김현수(12급) 김홍근(아마3단)

백승엽(아마3단) 백승이(아마5단) 신임성(2급) 신재욱(5급승급) 윤지한(아마3단) 이종찬(4급) 한장호 동문(3급) 등 30명이나 참석했다.

이날 오후 3시부터 토너먼트로 시작된 대국은 1회전부터 이변속출. 풍운아 신재욱 동문(6급)이 우승후보인 한장호 김홍근 동문을, 신임성 동문(2급)이 백승엽 윤지한 강병훈 동문 등 고수들을 격파했다.

결승에 오른 신재욱 동문은 흑4점을 깔고 신임성 동문과 한판승부를 벌였다. 필사의 방어로 나선 신재욱은 몇 수를 무리하게 둔 신

임성이 허변쪽 패를 성공시키지 못하고 상변의 집도 역공을 당하는 등 약점을 보이자 이를 놓치지 않고 밀어붙여 영광의 패권을 쥘 수 있었다.

신재욱의 돋보인 기력에 관전자 모두가 환호와 탄성을 보냈다. 특히 준우승에 그친 신임성 동문은 부상으로 받은 낯시름을 승자에게 선물해 주위로부터 뜨거운 박수를 받았다.

특히 김현수 동문(12급) 등 하급자들도 백승이 동문 등 여러 사범들로부터 지도를 받아 출전, 기염을 토했다. 한편 오후 8시30분경 대회를 마친 동문들은 기원 근처 일식집에서 뒤틀이를 하며 우정을 다졌다.

황금사자기야구 불참 경남고, 예선 추첨패

경남고는 올해 황금사자기 전국 고교야구대회(주최 동아일보사) 부산대표 선발 추첨에서 탈락, 지난 8월29일부터 서울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이 대회 본선에 진출하지 못했다.

경남고는 황금사자기대회 부산대표 선발 예선전이 9월초 서울에서 개최되는 2000년 시드니올림픽 예선 및 아시아야구선수권대회로 한달 앞당겨짐에 따라 부산대표 선발 예선전을 할 수 없게 돼 추첨으로 한 결과 부산상고에 추첨패를 당했다. 앞서 봉황기대회(주최 한국일보사)도 8월19일까

지 속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정이 조정되는 한 원인이 되기도 했다. 한편 경남고는 오는 10월 11일부터 인천에서 개최되는 제79회 전국체육대회 고등부 야구에 부산대표로 출전한다(지난 7월초 예선경기에서 우승).

봉황대기 2연패 좌절 경남고, 광주에 5-9 석패

경남고는 8월18일 서울 동대문구장에서 열린 제29회 봉황대기 전국고교야구대회(주최 한국일보사) 준결승전서 광주상고에 5-9로 분패, 20세기 마지막 봉황대기 왕중왕의 자리를 차지하지 못함으로써 대회 2연패의 영광도 놓쳤다.

동경회

李根培(24회)=상업은행 동경지점 차장으로 3년전 着任. 이후 부지점장으로 근무중 한국의 IMF이후 금융기관 구조조정으로 한빛은행 동경지점 부지점장으로 동경에서의 주재근무 마치고 7월말 귀국

제 6 회

張明洙=7월 29일 별세

제 7 회

許宗浩=6월 26일 서라벌호텔에서 아들 결혼
李相植=6월 20일 숙환으로 별세

제 9 회

李丁佑=그 동안 세광병원에 입원 투병중 완쾌. 9월 11일 오후 2시 오션타워에서 2남 결혼
金鍾守=투병으로 고생하다가 완쾌 되었습니다
朴浩一=7월 22일 외손녀 쌍둥이를 보아 손녀 보느라 바쁘답니다
金政權=오는 9월 5일 서울 현대본사에서 아들 결혼
金容冠=7월 17일 동기회사사무실에 내방하여 회식비 1십만원 기증
成百奎=8월 27일 구덕체육관에서 제4회 광덕원태권도 중별 선수권대회 개최
曹圭陽=(자택이사)부산시 사상구 엄궁동 680-1 코오롱아파트 106동 2102호. 051-327-4293
李相茁=(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우동 경동아파트 102동 804호. 051-744-0602, 0603. 011-864-4224
金台永, 崔在鳩, 梁一模, 崔鉉詰 移 舍 연락처 아시는 분은 동기회 사

무실(051-816-2335)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제 10 회

全圭三=7월 21일 서울시 신사동 4거리 명인기원 개원. 7월 28일 개원행사 가짐. 02-516-7609
崔淳震=남시모임 발기. 동문들의 많은 호응 바랍니다. 02-979-4473
金昌德=8월 5일 서울 호텔 소피텔 엠베세더에서 삼남 결혼
예종두=9월 3일 오후 5시 서울 탑웨딩에서 2녀 결혼
安又萬=재경동창회장. 9월 10일 63빌딩 코스모스홀에서 자녀결혼
姜在煥=신아약국 대표. 02-544-5475. (자택)서울시 강남구 압구정동 447 현대아파트 206동 1503호. 02-517-5475
金在坤=다목양행 대표. 02-755-7919. (자택)서울시 강남구 청담동 127-30 현대아파트 104동 2104호. 02-543-4497
朴七玟=(자택)경기도 군포시 당동 873 쌍용아파트 102동 2004호. 0343-392-0996
鄭甲煥=제원익스프레스(주) 대표. 02-738-5599. (자택)서울시 성동구 행당동 317-40 대림아파트 127동 103호. 02-2295-9437
趙守榮=한국노동 교육원 교수. 02-504-4278. (자택)서울시 노원구 중계본동 590 신안아파트 102동 1204호. 02-952-4115

제 12 회

鄭寅奎=재경동기회 총무. 4년동안 재경동기회 총무로서 수고하다가 7월 7일 병환으로 별세
金聖贊=경남고 교장으로 승진
金 勇=6월 30일부로 부산전역 역

어디서 무엇을

장으로 정년퇴임식 가짐. 철도공무원으로 수고하셨습니다
金容鎬=반여중학교 교장으로 승진
金鍾聲=동아대학병원 내과과장, 교수. 8월 30일 스페인에서 세계 심장병 학술학회에서 학술발표 연설 하고 귀국
朴昌洙=강원도 거진 후생병원 원장. 지역 군부대 하계의료 봉사활동에 두달동안 수고하셨습니다
襄基元=인제대학교 의과대학 학장. 지난 6월 대한해부학회 총회에서 초대 부산, 경남지회 회장으로 선임되었습니다
白勝均=여수 롯데빙과 대표. 여름철 휴가온 동기들 접대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宋世文=다대중학교 교감으로 승진
李鍾翰=6월 30일 경성대학교 교무처장으로서 정년퇴임식 가졌습니다. 2세 교육에 수고하셨습니다

제 13 회

成洛俊=7월 26일자로 국립수산물 검사소 포항지소장으로 승진. 0562-231-0091. 참 어려운 승진이었습니다. 축하합니다
尹英友=8월 3일자로 동두천 부시장 을 끝으로 35년간 공직생활에서 퇴임. 다시 제2의 인생을 개척하기 바랍니다. 0331-255-3222. (자택이사)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조원동 한일타운아파트 138동 1504호. 0331-255-3222
許 勳=재경동기회 총무. 98년 3월 농어촌연구원 연구실장을 끝으로 30년 공직생활 퇴임 후 제2의 창업인 에벤에셀약국 운영중. 동문들의 건강을 책임지겠으니 연락바람

니다. 032-469-5533
徐珍石=(자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한솔주공아파트 511동 405호. 0342-714-7356
尹良夫=(자택)서울시 종로구 종로3가 175-4 현대아파트 1308동 3호. 02-285-0077
李根模=(자택)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수내동 36 양지마을 청구아파트 205동 1002호. 0342-717-8678
崔長雨=(주)천운DNC. 02-549-8740
徐時柱=(자택)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현대아파트 101동 505호. 02-546-3561

제 15 회

姜昌一=(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14 건영1차아파트 302동 502호. 051-701-4208
金正吉=(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1414 건영1차아파트 311동 601호. 051-702-8500
任炳徹=부산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장. 051-519-4010
金道勳=연극연출가. 7월 9일부터 8월 16일까지 서울 연강홀에서 호화게스트로 구성된 뮤지컬 년센스 2 장기공연. 016-220-3675
金秉浩=7월 22일 동아방송대학 학장에 취임. 0334-670-6609. (학장실)0334-674-3112
朴章光=직장생활 청산. 서울 명동 입구 건너에 증화요리집 동천홍 개업. 02-779-8887, 8839
朴哲陽=(주)머큐리컨설팅 대표이사. 8월중 영국과 합작으로 2억달러 규모의 부동산합작회사 설립. 02-521-6072-5
劉仁基=도서출판 푸른물결 대표. 비즈니스맨을 위한 필독서 만리장성 뛰어넘기 출간. 02-2264-1048

李相球=한국생명운동본부 대표. 도고온천에서 뉴스타운동을 통한 프로그램 열고 있다. 02-3446-3939
李義鎬=재단법인 한국건설방식기술연구소 이사장. 노동부인가 국가기술인력 공인기관으로 현재 200여명 인력양성중. 02-3401-8388
池敏雄=(주)천지엔지니어링 대표이사. (사무실이전)02-585-8372. (자택)0342-781-2440
黃璋道=대한화재해상보험(주) 대표이사. 매년 해외에서 열리는 보험관계 국제회의의 참석차 영국으로 출국. 02-776-7362

제 16 회

金仁國=만화 동지 대표. 051-516-6986. 동기회사사무실에 소파의자 8組 기증
金秀興=지난 6월 일시 귀국. 4C. 175 HUSTMERE RD. TAKAPUNA, AUKLAND NEWZEALAND. 09-486-6963
金忠一=8월 3일 간암으로 별세
朴永秀=동광화공약품 대표. 051-241-7131. 7월 16일 모친 별세
申正泰=아젤리아 대표. 051-243-9707. 동기생들을 위해 동기회사사무실에 캔커피 계속 공급중. 감사합니다.
楊正德=신동아화재 덕수대리점 대표. 011-9518-9530. 7월 13일 부친 별세. 많은 동기들의 조문에 감사드립니다 장례 후 오복식당에서 다식제공
劉元隆=(주)광진특수강 대표이사. 0345-498-6421. 5월 30일 장녀 결혼
李吉秀=(자택이사)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243 LG아파트 108동 304호. 051-757-2086
李邦昭=부산시 연산동 프리아호텔 총지배인. 051-867-7500. 018

제32회 동기회 임원 일동

교 문

이민재 (주)서민여객 상무 622-7455

회 장

이병준 삼성안과의원 원장 204-2275

부 회 장

이관우 (주)씨드50 부산지사장 632-8882

감 사

한문진 (주)네비게이트해운 이사 464-1100

총 무

이문영 (주)현대자동차 영도영업소 과장 413-3553
김형수 (주)에덴여행사 이사 632-6212

이 사

김대식 동서대학교 일어일문학부 교수 320-1582
김원근 (주)동양화재보험 덕천영업소 소장 342-7713
김태홍 대신학원 부원장 557-3967
김창범 부산진구 기동대 중대장 808-4113
강기삼 내과의원 원장 895-0773
김정규 (주)금호철유공업 기획실 실장 052-266-7733
김광희 토성초등학교 서무과 과장 253-1944
김창수 월드전자 대표 310-0312
김종성 (주)일도공업 건축부 차장 781-6855
권창근 동명정보대학 교수 508-6731
문창진 (주)이상약품 317-5388
박종우 부산일보사 광고부 과장 461-4323
양문성 영림건축사 대표 0525-324-7733
유현희 (주)삼양발브 부장 310-0770
이종래 ING생명보험 부지점장 808-3233
안원철 부산예술문화대학 기획실 실장 628-3993
이명재 치과의원 원장 208-2098
이종선 부산외국어고등학교 교사 867-5093

이득우 부산대학교 기계공학부 교수 510-2465
이남규 비바제나이트클럽 대표 247-3823
이성호 (주)명성선박 대표 463-9657
임영택 부산대학병원 소아과 교수 240-7295
엄효선 치과의원 원장 501-0979
이종휘 (주)동양화재보험 부산전지점 지점장 637-7711
윤종걸 화장품총판 대표 758-0577
이웅길 동서대학교 영어중문학부 교수 320-1668
이근철 부산지방검찰청 형사2부 240호 검사실 250-4420
이병훈 공인회계사 317-6264
전성환 (주)만수 대표 248-2345
정성수 반도체기업 대표 264-5380
정용운 새화약품 영업부장. 505-4001
정현성 골든헤딩포토 이사 246-1147
최영균 백병원 마취과 과장 890-6526
최병식 진명PVC 대표 508-6781
허수철 (주)창성 총무과 차장 0525-327-3500
황문찬 철성국기사 대표 254-7557

-569-3827
林 實=부산포럼 총무이사로 맹활약중. 051-635-0180. http://user.chollian.net/~forumps.
車相榮=동양제강(주) 대표이사. 051-413-9501. 9월 4일 오후 5시 호텔 롯데부산(서면) 3층 크리스탈볼룸에서 차남 은우군 결혼
韓峯秀=대우자동차 판매팀장. 017-321-7113. 7월 27일 모친 별세

제 18 회

姜永鎬=경남상고 교감으로 승진. 051-248-1969
박동호=부산서여상 교감으로 승진
襄世元=유락여중 교감으로 승진
金基茂=동래여상으로 명예퇴직
朴精吉=양동초등학교로 명예퇴직
崔寬哲=8월 29일 금강웨딩홀에서 장녀 미라양 결혼
金大憲=경남중학 은사이자 부친이신 김봉기선생님(물상과목)이 7월 27일 별세. 신한방사선과병원 원장. 051-808-0400. 016-555-6148
鄭雨龍=신동아택시. 052-272-5019. 8월 1일 부친 별세
張基鉉=경향신문 부산지국. 051-466-0476. 7월 10일 부친 별세
李興洙=부산은행 본점 자금부장. 051-642-3300. 011-9511-7866.
金永一=국군 부산통합병원장. 051-754-1442. 011-864-1442
韓正甲=(주)우양상호신용금고 파산재단 사무국장. 051-806-1419. 016-327-2989
金萬根=삼우실업. 051-325-3511. (자택)051-332-3984
金東善=일성금속. 051-527-0311. (자택)051-704-6727
宋翔一=송상일피부비뇨기과의원. 051-245-4515
千斗甲=유니코상사. 화공약품판매 전문점. (사무실이전)부산시 사상구 폐법동 산업유통상가 26동 204호. 051-319-3931. (자택)051-205-1361
金詰用=부산시 연제구청 시민과장. 051-860-4268. (자택)051-754-6276
襄春根=1만여평의 과밭이 7월말 폭우로 침수된데 이어 태풍 올가 때문에 또 한번 물을 담아 망연자실. 위로와 격려를 아끼지 맙시다. (자택)051-204-0695. 011-9518-6213
金敬傑=동원철강상사. 051-746-0245. 지난 95년 11월 직장에 걸려 최근 3차수술 끝에 건강을 크게 회복. (자택)051-701-2457. 011-594-2457
張壽一=신성그래픽 대표. 그림타일 벽 제작업. 부산 부산진구 양정동 18회 동기회사무실 4층. 051-

865-2008. (자택)051-255-2902
黃逸善=해운대 청사포에서 청기와 찻집 운영. 051-703-5642. (자택)051-703-1858. 019-510-6740
禹元鎬=대동의료기공업사. 국내에서 제작한 외과수술용 실 판매. 051-301-1234. (자택)051-265-3055. 011-834-3478
金永昊=반도산업 부산사무소 소장. 051-633-0124. 011-869-7937
秋昌根=세븐일레븐(24시간 편의점) 대표. 부산 서면 백악관 앞 큰 길. 051-806-6852. (자택)051-795-0165. 019-578-7011
鄭永植=부산산업(주) 대표이사. 시멘트 제조회사. 051-324-1695. (부산숙소)051-623-6611

제 19 회

李龍欽=본부동창회 부회장. 8월 20일 코모도호텔에서 딸 결혼

제 20 회

金大斗=선진산업가스 대표. (자택이사)부산시 남구 문현1동 73-1 현대아파트 104동 2201호. 051-632-6819
文時煥=문산부인과의원 원장. (자택이사)부산시 연제구 연산9동 LGAPT 122동 1702호. 051-757-1074
章榮勳=부산시청 대중교통과장으로 전보. 051-888-3410
康箕哲=우성의과의원 원장. 051-895-0683
姜賢鎭=강현진성형외과의원 원장. 051-817-0195
金泰瑄=현대병원 원장. 051-555-8782
文成采=세강병원 원장. 051-751-2090
薛勝龍=설승용이비인후과의원 원장. 051-642-7777
薛昌煥=구포치과의원 원장. 051-332-6309
趙允泰=위생병원 이비인후과 과장. 051-242-9751
崔長夏=최요한의원 원장. 051-816-3800
韓基完=한기완치과의원 원장. 051-246-6979
鄭圭植=정규식비뇨기과의원 원장. 051-558-2443
白文燦=해운대 이비인후과의원 원장. 051-746-8494
金韓元=8월 15일 새마당에식장에서 차녀 결혼

제 21 회

權容孝=기장군 시민과장. 051-

어디서 무엇을

720-5260. (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두산2차아파트 207동 1801호. 051-703-0830
金昌秀=신신기계 전무. 051-727-5300. 7월 2일 모친 별세
申南錫=맥소프트뱅크 상무. 051-755-0144. 011-563-0085
尹相詰=한진중공업 외주부장. 051-410-3231
鄭暎天=변호사 법률사무소. 051-783-0041. 7월 26일 모친 별세
崔守明=(주)화인택 공장장. 052-254-1116. 8월 3일 사하구 구평동 냉동공장 인수 개업
崔熙春=해운대 신시가지 입구 공인증개사무소 개업. 051-747-0222

제 25 회

金大羽=한국통신 부산대리점 대표. 7월 27일 부친 별세
朴秉浩=수출입업체 신원종합상사 개업. 부산시 기장군 기장을 대라리 164-7. 051-722-8380~1
金燦洙=이삿짐 전문업체 럭키익스프레스 대표. 051-205-5555. (자택)부산시 사하구 당리동 480-9 삼성아파트 409호

제 27 회

李鍾贊=외환은행본점 신용관리부장으로 영전. 02-729-8868
金安石=9월1일부로 창원세무소 조사과장으로 영전. 051-461-9500. (자택이사)부산시 해운대구 중2동 삼익빌라 1동 206호. 051-746-0831
朴尙勳=부산시 금정구 부곡동 한미병원 산부인과 과장. 051-510-0001
尹晶煥=총동창회 용마골프대회 개인전 우승. 서진섬유(주) 대표이사. 051-462-4707. 생산물품 전량을 세계각지에 수출하는 타포린 제조업체
강봉호=고려산업(주) 채권팀장. 051-631-1500
金石韻=에진섬유(주) 전무이사. 051-527-0553
黃昊敬=ISA상운. 수출입 화물을 취급하는 해운대리점. 051-462-9285
張起南=한미교역산업사 대표. 051-528-6460 움직이는 동기회 명부. 90년 동기회장 재임중 동기회산우회 결성후 현재도 산행 준비 집행 관리 등 동기회 발전과 활성화에 적극적으로 참여중
安重植=계정동기회장. CNM시스템

대표. 02-3775-4891. 정보통신 부산하 한국Y2K인정센터에서 Y2K심사지정기관으로 지정 받음
梁太種=동아대학교 독문학과 교수. 동기생 중 최초 유일하게 백두대간 종주한 산사나이. (자택이사)부산시 사하구 다대1동 1552 대우아파트 103동 403호. 051-968-9680
金黃烈=부산지방법원 민사 신청과. 051-240-1318
金興根=현대해상화재보험 부산중앙지점. 명성코리아 드림대리점. 051-467-9484. 011-858-6045
韓章元=동아대학교 예술대학 미술학부 교수. 051-240-2838. 조형공예 작가. 올가을 서울과 부산에서 개인전을 개최할 예정
韓龍七=대한검도회 어천검도장 관장. 공인6단. 051-247-0437. 동기들의 건강 정신 인격수양에 많은 도움 주고 있음

제 28 회

尹鍾健=LG CALTEX정유(주) 부산지역본부 판매3팀장. 051-629-9213. (자택)부산시 사상구 학장동 168 벽산아파트 103동 1705호. 051-324-0709
金大慶=(회사명변경)동보수중건설(주). (자택)부산시 해운대구 좌동 벽산1차아파트 110동 1901호. 051-701-1177
李敏雨=동방엔지니어링 대표. 051-206-4010
柳承一=동양화재해상보험(주). 016-572-2361. (자택)부산시 사하구 괴정4동 1210-2 (13/3). 051-204-4363
林榮植=대원실업 영업이사. 051-319-3437~9
이용환=대성하이테크 대표. 051-552-2352
玉尙坤=동성무역 이사. 051-610-1233. (자택)부산시 남구 대연3동 센쥬리오피스텔 1436호. 051-610-0504
盧泳鉉=동성무역 대표. 051-610-1233. (자택)부산시 수영구 남천동 뉴비치아파트 503동 201호. 051-624-7083
金元洪=모친 별세
崔元培=부친 별세
李秉烈=(주)선진엔지니어링 도시계획실 이사. 02-650-2749
林相圭=경상대학교 산업시스템공학부 교수. 0591-751-5339. (자택)경남 진주시 신안동 20 현대아파트 103동 705호. 0591-743-3618

제 30 회

金道先=병원이전. 대항병원(구 서울외과클리닉). 서울시 서초구 방

배동 481-10. 02-63888-114
金詰光=현대건설(주) 민간사업본부 영업부. 02-746-2484
朴玟濠=(주)모델링 대표. (LG화학/테크빌 목동점). 서울시 양천구 목동 907-6 일번가빌딩 201호. 02-2061-0404
朴成重=서울시 공보관으로 영전. 02-732-9442
이한우=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 144-1 구미프라자약국. 0342-711-9884
曹永潤=민속주점업터. 성남점: 0342-732-4280. 분당점: 0342-781-4280
趙顯洙=우경상사 MANAGING DIRECTOR.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44-13 충무빌딩 901호. 02-3776-1647
許善行=LG엔지니어링 BDE지역3팀. 02-705-2244. (자택)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7동 908호. 02-565-0636

제 32 회

金亨洙=(주)에덴여행사 이사. 051-466-1533
金正圭=(주)금호섬유공업 기획실장. 052-266-7733
金光熙=토성초등학교 사무과장. 051-253-1944
金泰弘=대신학원 부원장. 051-557-3967
金鍾聲=(주)일도공업 건축부 차장. 051-781-6855
金幸圭=행정고시 합격 발령대기. 051-412-8303
문창진=(주)이상약품 대표. 051-317-5388
朴英煜=장평중학교 교사. 051-207-4173
辛國善=대연동 군기지사령부. 051-629-3151
徐仁鎬=태림수출포장 이사. 0525-331-8847
辛昇學=(주)관우건설 현장소장. 051-743-4005
林仁燮=부산 서구 부민동 동사무소 사무장. 051-240-4808
李宗來=ING생명보험 부산지점 부지점장. 051-808-3233
李官雨=(주)씨드 50 부산지사 대표. 051-632-8882
俞詰皓=부산 괴정동 출하추동밀면 대표. 051-291-7122
芮同海=주택은행 괴정동지점 과장. 051-292-0171
尹鍾傑=화장품총판 대표. 051-758-5077
李文永=(주)현대자동차 영도영업소 과장. 051-413-3553
李根哲=부산지검 형사2부 240호 검사실. 051-250-4420
田成黃=(주)만수 대표. 051-248-2345.

제34회 동기회 임원 일동

Home Coming Day 추진준비위원장
서영화 청해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44-9697
Home Coming Day 추진 총무
정현욱 Prudential Life Planner 469-3639
고 문
류승우 (주)현대산업안전 대표 265-4245~7
서영화 청해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 244-9697
감 사
이종광 부일산업 대표 525-5199
조자영 산동회계법인 공인회계사 463-7222
회 장
황병주 만제한의원 원장 897-6463

부 회 장
김기대 카멜레온X 대표 627-3300
김두섭 대동병원 내과과장 554-1233
김용백 밀양 정형외과/내과의원 (0527)356-5500
김인용 미치과의원 원장 628-6111
류세호 남양레미콘 대표 (0595)83-9734
박서호 동부종합폐차장 전무이사 522-3844
오승대 (합)보수산업 대표 628-1236
이재완 이재완이비인후과의원 원장 207-1866
임용철 대원기계공업(주) 대표 752-6951
정현욱 Prudential Life Planner 469-3639
채선정 서린중기 전무이사 811-1455~6
한봉수 켈리티코리아 대표 468-2125
허운모 명문학원 원장 293-4001

총 무
박기훈 신우산기 대표 (0525)338-5200
박영관 유원메디칼 대표 462-4248~9
이 사
김지철 반석학원 부원장 896-0790
김한조 신동상사 대표 412-3421
변성수 성현실업 대표 328-4974
이환우 단암산업(주) 대표 806-8057
정성근 부산지방검찰청 특수부 254-8081~9
조남훈 (주)대우자동차 과장 262-9300
진양호 세정텔레콤 636-2015
차영복 동일고무벨트 생산1과장 520-9220

재경경팔회 무더위에도 건강 다져

제8회 재경동기회(회장 이창규)는 8월 한더위에도 클럽별 왕성한 활동과 심신을 다지고 우정을 쌓았다.

태영 신현주 이유환 배주원 이준근 강성태 추정화 이창근 동문(이상 도착순) 등 8명.

잔디회 8월우승 노재복

골프모임 잔디회(회장 이창근)는 8월5일 안성CC서 월례회 개최. 남자부 우승 노재복(85타 7언더)·준우승 김영길·행운상 배주원, 여자부 우승 김정화(이창근 동문 부인·94타 4언더)·행운상 이정자님(이유환 동문 부인) 차지.

팔선회 왕중왕 이유환

바둑모임 팔선회(회장 이유환)는 8월13일 오후 1시 일품기원에서 정례대회 개최. 우승 이유환(5승2패·3단)·준우승 추정화 동문(4승 2패). 이날 참석자는 윤

삼천포 등 26명 참석 제15회 기우회 7월 대국

제15회동기회 기우회(회장 김정환) 7월 친선대회가 7월24일 오후 3시 부산 동구 범일동 국제기원에서 26명의 동문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특히 이날 대국에는 경남 삼천포시에서 교편생활을 하고 있는 장봉고동문과 대구 출장에서 돌아온 박찬호동문 등이 참석, 반가움과 함께 분위기를 따뜻하게 했다. 참석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김삼용 김장길 김경현 심재일 김판열 박소남 박찬호 김지영 박준부 조일량 박종석 김기평 서필근 윤상준 정윤석 강무상 정수방 김광출 오종현 이순구 유승덕 김형영 김춘상 정정문 박 용 장봉고.

용란회부부 17명 중국역사탐방

항주 등 고도풍광에 감탄

제11회동기회 용란회 부부 17명은 7월18일부터 5박6일간 일정으로 중국탐방을 실시했다.

일행은 중국탐방 첫날인 18일 김해공항에서 중국 동방항공편으로 상해로 출발, 그 끝없이 펼쳐진 대륙의 장대함에 놀란 이래 병풍같이 오목조목한 산들로 뒤덮인 중국의 얼굴 개림에 도착 했다.

대우에서 경영하는 웨라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가마우찌로 물고기를 사냥하는 전설같은 이강(利江)을 선편으로 탐방하고 한없이 긴 관암동굴의 장대함을 새삼 느꼈다. 고도인 항주 소주를 거지면서 고색찬연한 사찰, 탑 등 중국이 아니면 볼 수 없는

장대함과 웅장함에 다시 놀랐다.

상하이는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중국의 관문. 고층빌딩이 들어서는가 하면 1백년 묵은 고가들이 금방이라



중국역사탐방에 나선 용란회 회원들의 고궁에서의 기념촬영.

무박2일 야간산행 “환호”

이일산우회 20여명 양산 외승~은동굴~범어사서

제21회동기회 이일산우회(회장 정영천)는 7월24~25일 이틀간 경남 양산 외승일대에서 동문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야간산행대회를 가졌다. 이번 산행은 양산 외승~은동굴 장군봉~범어사 코스로 24일 밤 11시에 시작, 다음날 새벽 5시에 하산 했다.

한치 앞의 시야도 없는 숲에서 서로의 손전등에 의지해 뒷사람의 진로를 인도해주는 전우애를 발휘, 5시간 여의 야간작전을 무사히 마쳤다. 동

문들은 하산 후 서로의 형클어진 얼굴 모습을 보면서도 흐뭇한 새벽을 맞이할 수 있었다.

칠혹같은 캄캄한 밤에 추위와 바람, 안개, 소나기까지 맞으며 야간산행은 젊은 시절 야간군사산악훈련을 방불케 하는 작전으로 강행되었다. 동문들은 협동정신으로 산행을 무사히 마쳤다.

이일산우회는 매월 넷째 일요일 동문·가족들이 함께 참석, 새로운 산행 코스를 개발하고 있다.

용란회 신임회장 이재진



제11회 동기회 용란회는 8월22일 낮 12시 부산 해운대구 기장군 철마에서 '99 정기총회를 열고 이재진 동문(성진종합비닐상사대표·사진)을 회장에, 이정기 동문을 총무에 각각 선임했다.

동문뿐 아니라 부인들도 회원으로 함께 활동하고 있는 용란회는 이날 정기총회겸 आय회를 함께 열어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우리는 하나.” 제33회 마산·창원·진주 지역 동문과 가족들이 आय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마산·창원·진주 가족 “신바람” 제33회 지역회 들놀이

즉석체육대회...청군 우승 독일 성해경 가족 참석 동기회 총무 김재선부부도 신용준, 냉동차식사 지원

제33회동기회(회장 김재룡) 마산·창원·진주지역동문들은 8월22일 신봉섭동문이 근무하고 있는 경남 진주 OO사령부에서 가족동반 하계야유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동문·가족 50여명이 참석, 우천으로 인해 사령부 내 체육

관에서 청군 백군으로 나눠 즉석 체육대회를 열고 배구 발야구 피구 족구 시합을 가진 결과 청군이 우승했다.

체육대회를 마친 동문들은 사령부 내 비성공원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행사를 마쳤다.

특히 이날은 독일에서 성해경 동문 가족과 동기회 총무 김재선 동문가족이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었다. 또 신용준 동문(신가네유통 대표)이 냉동차를 동원한 식사지원으로 동문가족들에게 큰 박수를 받았다.

제18회 날로 활성화 각 지역회 모임 활발

△해운대 수영 남구회(회장 김준길)=7월 15일 오후 7시 부산 해운대신시가지 '호박터'에서 7월 월례회 개최. 동문 30여명 참석.

△서 사하 강서구회(회장 임도근)=7월 30일 오후 7시 부산 사하구 괴정동 '부미초밥'에서 월례모임 개최. 휴가 시즌인데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30여명의 동문이 참석 결속력 과시.

△부산진 연재구회(회장 김대현)=다른 지역동기회와 중복을 피하기 위해 모임날짜를 마지막 주 수요일에서 넷째 주 수요일로 바꿀 것을 검토 중.

한증막 같은 장산 정복

이철산우회 106차 산행

제27회동기회 이철산우회 제 106차 산행대회가 8월8일 폭염이 진동하는 부산 해운대 장산(634m)에서 장기남 산행대장을 비롯, 강봉호 김현수 김황렬 박상훈 양태종 윤지한 이인규 이태주 조인영 최경룡 황호경 동문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강행했다.

일행은 이날 오전 9시20분 해운대신시가지 장산 들머리인 공원 옆 인공호수 앞쪽을 돌아 계곡쪽으로 들어갔다(인솔대장 강봉호).

산길은 바람 한 점없는 한증막과 같았다. 황호경 동문의 뒤를 따라 오르던 일행은 출정 15분만에 땀으로 온통 젖은 몸을 이끌고 제일봉에 올랐다.

이인규 황호경 동문의 간포도통조림(살짝 얼어있음)이 갈증을 풀어 주었고 양태종 김황렬 동문이 힘겨운 몇몇 친구들의 배낭을 대신 짊어지고 올라가는 등 동창애가 뜨거운 열기 속에 솟아 올랐다.

일행은 약전고투 끝에 계이봉을 올라섰다가 산허리를 돌아 지뢰밭 경고판을 만났다. 숲 속을 헤쳐나오니 넓은 갈대밭이 나타난다.

갈림길에서 폭포사계곡을 택해 산을 재촉했다. 폭포사계곡은 피서객들로 난장판 그대로였다. 오후 1시경 출발지였던 인공호수 공원 광장에 낙오자 하나 없이 재집결한 일행은 해운대의 소문난 돼지갈비집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해수온천욕으로 피로를 풀었다.

일행은 하얏트호텔 로비 바에서 시원한 생맥주로 해단식을 가름했다. 생맥주는 황호경 동문이 스폰서했고 10% 할인 회원카드를 이태주 동문이 주선해 주었다.



부산방사선과의원 종합건강진단센터

院長 章 輝 烈
(전문의/의학박사/29회)

부산시 서구 초장동 54-3번지
(대학병원에서 총무동 쪽 150m)
TEL : 256-2200, 247-2200, 247-1117
FAX : 255-8445



- X-RAY
- CT촬영
- 초음파촬영
- 유방촬영
- 골밀도측정
- 종합검진

※ 동문가족은 특별히 우대함